

#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학

Sustainable Society and Ecology

유정철

I. 서론

II. 본론

1. 네메시스(Nemesis)로서의 인간

2. 생태주의와 환경주의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주의자들의 전략

III. 결론

## Abstract

The word ecology is widely employed today in various academic field such as politics, economics and theology as well as biology. In these field, ecology is usually used to explain what a sustainable society is and how it can be built. In this context, the sustainable society refers to a social system with ecological harmony. Ecologists believe that present manners of living, encouraging increase of consumption, should be changed fundamentally to solve the impending global environmental crises. They think anti-population measures are needed to build a sustainable society because the only solution to reducing consumption is population control. Therefore, ecologists believe any policies to protect natural resources cannot succeed unless it is related to population control. Ecologists criticize human-centered thinking. In fact, if we protect wildlife only for our use in the future, we may not protect the animals themselves. Ecologists assert animal rights of survival. They also oppose humanism because this conflicts with natural law.

## I. 서론

생물과 그 생물들이 속해 있는 환경(여기서 환경이라 함은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생태학'(Ecology)이란 용어는 이제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사회주의'나 '보수주의' 등의 용어처럼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신학 등 여러 학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학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용어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과 생물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쓰여질 때, 사실 생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제

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심지어 80년대 후반에 우리 나라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는 ‘녹색문화’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학문의 분야는 다르더라도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게 된다(INCN/ UNEP/ WWF 1991). 여기서 지속가능한 사회란 단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급급한 사회체계가 아니라 생태적 조화(ecological harmony)를 이루는 사회 체계를 가리킨다.

그러면 “생태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아마 이 세상이 가장 완벽하게 생태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태초의 순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창 1:4, 10, 12, 18, 21, 25, 31).

다음 질문은, “그러면 태초에 생태적 조화의 세계를 이루고 있던 이 세상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환경 위기를 맞게 되었고, 또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창 1:28)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현재 인류가 당면한 환경위기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II. 본론

### 1. 네메시스(Nemesis)로서의 인간

자연과 환경의 파괴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예는 어렵지 않게 현재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나그네 비둘기는 한 때 북미 대륙에서 가장 흔한 들새였다(원 1993). 나그네 비둘기의 큰 떼가 지나가면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였으므로,

아무도 이 새가 멸종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미국 개척시대가 시작되면서 나그네 비둘기의 수난은 시작되었다. 이 새는 아주 고기 맛이 좋고 대평원에서 큰 무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부 개척자들의 식탁에서 아주 인기있는 메뉴가 되었다. 미대륙을 동서로 가로 지르는 철도가 놓이면서 이 새는 철도 건설 노동자를 위한 식사 뿐만이 아니라, 상품화되어 이웃 여러 마을로 신속하게 공급되었다. 이 나그네 비둘기의 포획을 위해 수천의 전문 사냥꾼이 고용되어 기관총을 비롯한 여러 화기를 사용하여 남획하기 시작했다. 이 새는 큰 나무에 수십 또는 수백씩 무리를 지어 새끼를 치는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더욱 남획하기 쉬웠다. 사냥꾼들은 어린 새나 늙은 새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포획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855년 뉴욕의 한 거래처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18,000마리의 비둘기를 매매한 사실이 있고, 1869년 한 해 동안 한 지역에서 750만 마리의 나그네 비둘기가 포획된 기록도 있다. 이러한 남획으로 인해서 나그네 비둘기의 수는 격감하여 19세기 후반에는 큰 번식 집단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희귀한 종이 되어 버렸다. 1894년 마지막 둥지가 발견되었으며, 1914년 신시네티 동물원에서 최후의 한 마리가 죽음으로서 이 새는 멸종되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과거 백악기 말 공룡이 수많은 종의 동식물들과 함께 사라진 이후 약 6,500만 년 동안의 그 어느 해보다도 빠르게, 거의 1,000배나 빠르게 생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 지금도 매일 50-100종의 생물이 소리없이 아무도 모르게 멸종되고 있다(Western & Pearl 1989). 이런 추세로 생물들이 사라진다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지구에 남아있는 종(種)의 약 25%가 멸종될 것이다(UNEP 1992).

동물의 서식지도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브라질의 아마존 강 유역이다. 지금 이곳의 열대 우림은 패스트푸드용 쇠고기 생산을 위한 초목지를 만드느라 매년 미국의 테네시 주보다 더 넓은 삼림지역이 차례차례 불태워지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네 번째 큰 내륙해였던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랄해에 유입되던 물이 메마른 농지에 목화를 재배하기 위한 관개용수로 전용되면서 빠르게 사막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해안선은 하루가 다르게 멀어져 가고 있다.

이처럼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림과 농지 개발은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의 서식처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또한 개간된 곳에 심게 되는 농작물의 대부분이 1-2년 생이므로 수확 후에는 이들 생물체는 생태계에서 사라지고 결국 많은 식물이 충위를 이루고 있던 삼림이나 초원보다 단위지역 당 순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며, 질소나 무기염의 순환이 멈추어지고 에너지의 유출이 일어나므로 생태계는 불안정 상태가 된다. 특히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 유역의 개발로 인한 삼림제거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빠른 사막화 현상은 지구마을 전체에 기상변동과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Leggett 1990). 이처럼 인간 활동은 지금 지구 곳곳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생물 자원을 침식하고 있다. 현재 지구의 순 1차 육상 광합성 생산성(net primary terrestrial photosynthetic productivity)의 40%가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 직접 소모되거나, 다른 것으로 전환되거나, 못쓰게 되고 있다(Vitousek et al. 1986).

## 2. 생태주의(Ecologism)와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함께 나온다는 그린TV, 그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그린냉장고, 전력소모를 최소화했다는 그린컴퓨터 또는 그린PC, 그린소주, 무공해로 수질 오염이 거의 없는 세제라고 선전한 그린 세제 등, 그린(Green)이라는 말은 요즘 컴퓨터는 물론 소주나 아파트 광고에까지 등장해 친환경성을 대표하는 용어처럼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환경용어의 남용으로 정작 '환경마크'를 받은 상품은 팔리지 않고 엉뚱한 상품들이 친환경적인 제품처럼 소비자를 속이며 판매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94년 3월 환경처는 상품에 무분별한 환경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특허청과 공정거래 위원회에 ‘그린’ 또는 ‘무공해’ 등 환경용어를 상표와 광고에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지경에 이르렀다.

요즘 친환경성의 대명사로 쓰이는 ‘그린’(Green)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서구 사회에서 녹색운동을 이끄는 이념은 생태주의다. 그러므로 흔히 생태주의는 녹색주의라는 말과 함께 혼용하여 쓰일 때가 많다. 여기서는 생태주의(또는 녹색주의)와 환경주의와의 차이점을 통해 ‘그린’(Green)의 참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실 생태주의와 환경주의는 여러 면에서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둘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생태주의를 환경주의와 차별화시킬 때 녹색(Green)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더 명쾌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본다.

생태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경제를 포함한 기존의 생활양식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만 당면한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환경주의자들은 환경문제를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현재의 생산 및 소비의 가치 또는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환경주의는 생태주의가 주장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현재의 정치, 경제적 관행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당면한 환경을 관리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을 택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태주의란 물이나 화석연료와 같은 천연자원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모피를 입지 않도록 하는 한두 가지의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완전한 사고(思考)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Dobson 1990).

앞에서 녹색(Green)이라는 단어도 요즘 녹색주의에 진정으로 동참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에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Green)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녹색주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과 행위가 물질 소비를 부추기는 것 인가, 아니면 물질 소비 자체를 자제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쓰레기의 재순환이나, 환경에 피해를 조금 덜 주는 물건을 만드는 것 등은 녹색주의의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녹색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사회를 덜 물질적인 사회로 바꾸는 것이다. 즉, 녹색주의자들의 주장은 소비의 감축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녹색주의자들은 우리가 소모하는 많은 품목들이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에 대한 욕망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생태주의는 지구의 유한성에 근거하여, 지구 자체가 제한된 인구만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인류가 사용 가능한 여러 자원도 유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초프 카프라(Fritjof Capra)(1985)는 그의 책 「전환점」(The Turning Point)에서

천연자원의 급격한 고갈을 늦추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를 막아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빈과 폰톤(Irvine & Ponton 1988)의 녹색선언문(A Green Manifesto)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소비자 수를 안정시키고 점차로 줄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구 정책과 연계하지 않는 어떤 자원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주의자들은 낮은 출산률이 노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성장에는 방해가 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생태주의는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여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류에게 유용한 여러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은 그것 자체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명중심 사상이다. 여기서의 생명중심 또는 생명존중이라는 말은 요즘 고급 아파트나 빌라를 선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간 중심의 편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또 생태주의는 모든 종류의 의견이 존중받는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안정된다는 생태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건강한 사회란 가능한 모든 범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찬양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생태주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 분권화의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지 오래된 영국에서는 매년 국가발전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영국정부의 반대에 직면하여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로가 좋아지면 지역민에게 유익되는 면도 있지만, 지역특성이 사라지고 공해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반대하는 지역구민이 많아 지방의회(country council)가 도로확장을 반대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회의적이다. 첫 지방자치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 모두가 개발 중심적인 사업 공약을 내걸었고, 유권자의 대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풍치지구나 자연보호 구역의 지속을 원하기보다는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에 관심을 보여 개발 논리에 동조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녹색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의 확대가 중앙집권적 체제보다 더 환경보호에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생태주의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생태주의자들이 서방세계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파괴를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동구권의 구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서방보다 더욱 심한 환경오염 실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교외 지역에 있는 우물 중 약 90%가 공산 정권하에서 오염된 사실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 또한 옛 소련이 무너지면서 ‘철의 장막’ 속에서 은밀하게 저질러졌던 환경범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핵발전소와 무모하게까지 느껴지는 핵폐기물 처리과정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러시아는 세계의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다가 최근에야 개발되기 시작한 시베리아도 환경오염의 몸살을 앓고 있다. 서부 시베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요충지로 석탄, 화학, 철강, 기계공장들이 모여 있는 쿠즈바스(Kuzbass)의 환경오염 피해는 극심하다. 수많은 기형아가 태어나고, 하늘에서는 검은 눈이 내리고, 공장에서 뿜어내는 독성 물질들은 쿠즈바스의 대기를 허용치보다 10~30배 이상 오염시키고 있고, 도시 용수를 공급하는 톱강의 물에는 페놀과 유기염소 물질이 허용치의 10배 이상이나 검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체에 매우 해로운 다이옥신(dioxin)까지도 검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시 당국은 이러한 환경오염을 막을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

생태주의는 인류 상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종(種)이 생명권(right to life)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그들은 인간을 자연의 다른 종(種)들과 분리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간중심 철학을 배격한다. 즉, 생태주의자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해 온 인간중심 철학에서 생명중심 철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태주의자들은 인간이 이성(理性)을 잘 활용하여 지구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오히려 이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마지막 단계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연계가 사고 능력을 가진 인간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다면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태주의자들은 우리가 자연의 교훈을 잘 경청하면 이 사회

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말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주의자들의 전략

앞에서 생태주의가 현재의 생산과 소비양식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생태주의자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정치생태주의자들은 생태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보이는 여러 자연보호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 사회, 경제생활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서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Dobson 1990).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일부 타당한 면도 있으나, 독선적인 면도 없지 않다.

자연보전단체(Conservation)들 중에서 영국의 <National Trust>는 옛 건물과 자연을 옛 모습대로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단체는 귀족들이 소유했던 광대한 땅과 옛 저택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면 이를 맡아 옛 원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한 재정의 확립을 위해 예전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귀족의 땅과 저택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개방한다. 소유한 땅들을 자연상태로 보전하며, 가능하면 여러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요 관심은 모든 건축물과 정원을 포함한 땅들을 현재의 상태보다 나쁘게 만들지는 않으려는 데 있다.

환경(environmental) 단체들 중에는 <그린피스>(Greenpeace)나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등이 있는데 이들은 환경의 오염과 파괴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적극성을 보이며, 집요하게 우리들이 당면한 환경위기에 대해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자청한다. 94년 5월 <그린피

스>는 북한측에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며 22명이 탄 'MV 그린피스' 호(號)를 원산(元山) 근해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런던에 본부를 둔 <지구의 친구들>은 1992년 「적은 교통량, 나은 도시」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생활은 조금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나, 공해로 인해 오존층 두께가 얇아지고, 산성비의 피해는 커져서 결과적으로 미래에 더 큰 고통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통량을 감소시키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럽의 여러 성공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치생태주의자들은 자연보전주의자들이나 환경주의자들이 그들과 많은 부분에서 환경인식을 같이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양식을 제도의 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그린피스>나 <지구의 친구들>보다 영국과 독일의 <녹색당>(Green Party) 등이 생태주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압력 단체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는 녹색당이 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태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 전역에 걸친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생태주의자들은 세계가 인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믿음을 거부한다. 또한 그들은 과학과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환경위기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구심을 갖는다. 생태주의가 과학과 기술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태주의가 기술 이전의 시대에 되돌아가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때가 많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주장이 생태주의를 대표하는 사상은 아니다. 생태주의자들은 자연이 영원한 진실성을 갖고 있으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에는 회의적이지만 과학이 갖고 있는 객관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생태주의가 과학과 기술을 부정한다는 오해와 함께 진정한 생태주

의 운동에 방해를 주는 것은 집시생활을 하는 여러 집단과, 신세대 운동(New age movement)을 주도하는 비사회적, 이단적 성격을 가진 집단들도 생태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사상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녹색주의 그것 자체가 민주적인 방법에 의지하기보다는 권위주의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과거 녹색운동 단체가 취해 온 수단이 다분히 과격하고 부적절했음에 기인한다. 특히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반자본주의자(anti-capitalist)와 민족적 사회주의자와 파시스트당들이 생태주의자들을 유혹하고, 1960년대 말의 미국에서 발생한 무정부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태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데서 어느 정도 기인한다. 실제 생태주의자들 중에는 과거에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anarchist), 그리고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t) 등 다양한 종류의 급진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많다. 생태주의가 이 시대에 지속적인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급진파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생태주의를 현실에 실현해야 할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물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현대 생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동물학과 교수였던 찰스 엘튼(Sir Charles Elton)은 생태학의 고전인 「동물생태학」(*Animal Ecology*)(1927)에서 생물들이 서로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모든 생물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상호의존주의에 입각한 평등주의에 도달하게 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항상 그들이 살고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는 러브록(Lovelock 1979, 1986)의 가이아 가설<sup>1)</sup>도 생물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러브록은 범지구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과학

1) 가이아(Gaia)란 '대지의 여신'이라는 뜻으로서 러브록이 이 명칭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여서 지구가 스스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외부의 변화에 대응한다고 주장하였다(조정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가이아 이론", 「통합연구」 제7권 4호, 1994).

자들의 편향적인 시각, 환경보호주의자들의 편협한 인간 중심적인 태도, 정치가들의 독선과 일반 대중의 맹목성 등을 지적한다. 그는 인간만을 위한 환경보전이 되어서는 안되고,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환경보전 노력을 강조한다. 러브록은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것은 핵폭탄이나 산성비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승용차와 가축과 기계톱(chainsaw)이 지구의 장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오늘날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대기오염의 80%, 소음의 75%는 자동차가 그 주범이다. 눈병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스모그현상<sup>2)</sup>의 주범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인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이다. 50년대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의 80%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 생산되는 차에 배기 조절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계속 새로운 촉매장치를 개발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왔으나 아직도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이 스모그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나라에서 95년 6월 자전거 도로망 확충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대한 보호대책이 수립된 것은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덴마크의 경우 근로자의 약 40%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열대 우림을 포함한 많은 삼림이 가축사육을 위한 초목지를 만드느라 차례차례 불태워지고 있다. 특히 열대 우림은 방대한 양의 수증기를 발산하고 구름의 형성을 돕는 가스와 입자상 물질을 엄청나게 방출하여서 흰구름의 그늘을 만들고, 또 비를 만드는 등 지구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Simpson 1990). 러브록은 열대 우림을 손상시키는 일은 어떤 핵전쟁보다도 더 가이아에 끔찍한 일이라고 우려한다.

2) 스모그(Smog)란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 공장이나 자동차, 가정의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 안개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생태주의는 인간 중심적(human-centered) 사상에 대해 비판한다. 영국의 포리트(Porritt 1986)는 단지 동물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실제로 우리는 동물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철학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태주의자들이 인본주의(humanism)를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그것이 자연법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III 결론

위에서 생태주의자와 환경주의자와의 차이점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주의자들의 전략을 통해 ‘녹색’(Green)의 의미와 ‘생태주의’가 가지는 철학적 사고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생태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좀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생태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고 자 희생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생태주의의 경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Bramwell 1989). 생태주의자들은 자연이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믿지만,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하고 희생해야지만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위에서 생태주의자들이 인간중심적(human-centered) 사상을 갖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계에 대한 인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수동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생태주의자들은 사물을 바르게 보고 느껴야 하며, 그리고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줄 의무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생태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을 가질 것과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이 양치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생태주의자들은 모든 시장 경제에 기본이 되는 매매(trade)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매의 행위는 소비를 더욱 부추기어, 있으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여러 상품을 만들게 하여 유한한 자연자원을 더욱 빠르게 고갈시키고, 또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에 의해 사회는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에 직면하게 되고, 환경 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손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물교환과 자급자족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다. 물론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나 몇몇 곳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생태주의에 입각해 살려는 시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 뚜렷한 성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시도는 여러 종교의 이단들에게 의해 이용되기 쉽다.

생태주의자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자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생태주의자들에게 종종 이중적인 면이 발견되기도 한다. 정통 기독교가 원죄를 강조하는 반면 생태주의자들은 원죄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고, 자연은 조화로운 것이라고 믿는 측면에서는 낙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소비를 두려워하고, 회복하기 힘든 도덕적 타락과 환경의 파괴를 두려워한다는 측면에서는 염세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생태주의자의 많은 수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수가 범신론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생태주의자들 중에서는 노자사상이나, 불교, 그리고 유교와 같은 아시아 종교를 선호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사상들이 자연을 보는 관점에서 그들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태주의자들 중에는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서구 사회의 위기가 적극적으로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한다는 기독교 신앙(창 1:28)에 근거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여, 2000년대의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기독교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생태주의자로서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개신교보다는 천주교를 선택하려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 현재의 서구 문명을 이룬 이면에는 개신교의 역할이 컸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19세기 말 생태주의의 좌파적 성향은 영국에서 생태주의의 변형된 사상인 퀘이커교도(Liberal Quaker)를 낳았다. 생태적 운동의 한편에는 평등주의(egalitarian)가 있는데, 자연에 대한 탐험을 멈추고, 희생에 대한 평등을 요구한다.

위에서 살펴본 생태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미 생태주의는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이 생태주의 운동은 영국과 독일의 녹색당과 그 밖의 유사한 정당이나 집단을 형성시킨 운동이다. 그러나 생태주의를 현재 각 나라의 녹색당이나 유사한 환경집단 어느 하나를 통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녹색당만 하더라도 최근에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와 현실주의자(realist)로 갈라져, 그 동안 공통적으로 주장하던 몇몇 기본 정책들을 지금은 포기하고 있다. 결국 하나의 정당 내에서도 이상주의와 실제 현실참여자 사이에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동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1985년 6월 녹색당을 떠난 루돌프 바로(Rudolf Bahro)는 독일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생태주의의 입장에 서있지 못하다고 공격했다. 독일 녹색당은 “만약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동물의 고통은 용인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루돌프 바로(Rudolf Bahro)는 “이러한 사상은 사람들이 식물과 동물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들도 해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의 사고는 근본 생태주의자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근본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차이점 모두가 일면 옳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아쉽다. 왜냐하면 생태주의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생태적 위기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꼭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연은 인간의 지배와 정복의 대상이라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으로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을 자연에 대한 통치자의 위치에 둘 것인가, 아니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수임자의 위치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과 생물이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뿐만 아니라 땅과 짐승과 세상 모든 것에 미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렘 4:22~28, 욥 1:10~17, 호 4:1~3),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인간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이 서로 화목할 것이며, 모두 축복받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렘 26:3~6, 욥 5:23, 사 35:1~2, 호 2:18~22). 당면한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그리고 모든 자연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관리자로서의 직분을 겸허히 수행해야 하겠다. 이것이 성경에 입각한 진정한 생태주의가 아닌가 한다.

## 참고 문헌

- Bramwell, A., *Ecology in the 20th centur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89.
- Capra, F., *The Turning Point*, London: Flamingo, 1985.
- Dobson, A., *Green political Thought*, Acad. Div. Unwin Hyman Ltd, 1990.
- Elton, C., *Animal Ecology*, London: Sidewick and Jackson, 1927.
- Irvine, S. and A. Ponton, *A Green Manifesto: Policies for a Green Future*, London: Macdonald Optima, 1988.
- IUCN/UNFP/WWF., *Caring for the Earth - a strategy for sustainable Living*, Switzerland: Gland, 1991.

- Leggett, J., *Global Warming-the Greenpeace report*, Oxford: Oxford Univ. Press, 1990.
- Lovelock, J., *Gaia: the world as living organism*, New Scientist 18:25, 1986.
- Porritt, J., *Seeing Green*, Blackwell. Oxford, 1986.
- Simpson, S., *Guide to the Environment*, Times Books, London, 1990.
- UNEP, *The World Environment 1972-1992*, Chapman and Hall, 1992.
- Vitousek, P. M., P. R. Ehrlich, A. H. Ehrlich and P. A. Matson, "Human appropriation of the products of photosynthesis, *Bio Science* 36:, 1986, pp. 368-373.
- Western, D. and M. Pearl., *Conserv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xford: Oxford Univ. Press, 1986.
- 원병오, 「야생동물보호관리학」, 경희대학교, 1993.



■ 유정철 ■

경희대 및 동대학원에서 생물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영국 University of Oxford에서 동물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Edward Grey Institute of Field Ornithology, University of Oxford에서 연구원 역임, 현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 경희대 부설 한국조류연구소 소장, 한국생태학회와 한국조류학회 이사, 대한의생명학회 이사로 활동 중.